

청소년
영스민
도서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할 도서



성장명답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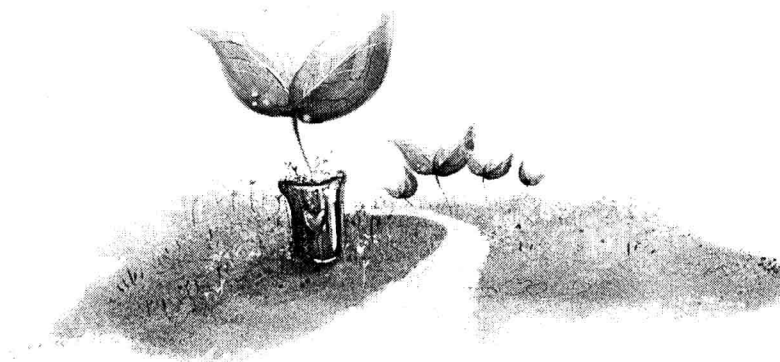
김엽 역

가지

연변인민출판사

생장명답 101가지

김영 역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림복희
책임교정: 신분희
기술설계: 장학봉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101成长胜经: 朝鲜文 / 岳兰编著; 金叶译. 一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590-9

I. 1… II. ①岳…②金… III. 故事—作品集—世界—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14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70427号

101成长胜经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875 字数: 23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90-9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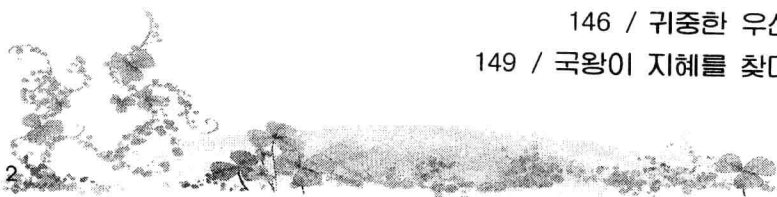
印数: 1,0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차례

신기한 샘물 / 1
자라지 못하는 꼬마젓나무 / 4
꼬마도서관리원 / 7
어린 처녀애와 천당새 / 10
늙은 나귀의 망질 / 13
금이 간 물동이 / 16
기이한 시계 / 19
돌 한개로 생긴 녀원 22
넌 모든 힘을 다했느냐? / 25
매개인을 존중해야 한다 / 28
시간과 사랑 / 31
꼬마달팽이의 껍데기 / 34
선사의 란초 / 37
돌을 옮긴 재간동이며느리 / 40
비행기를 부른다 / 43
잔이 넘치도록 차를 붓다 / 46
그림을 부탁하다 / 49
따스한 크리스마스 / 53
하느님이 와서 나를 구원할것이다 / 56
잃어진 놀이감 / 59
친구 / 62
고슴도치의 비밀 / 65
초나라왕이 활을 쏘다 /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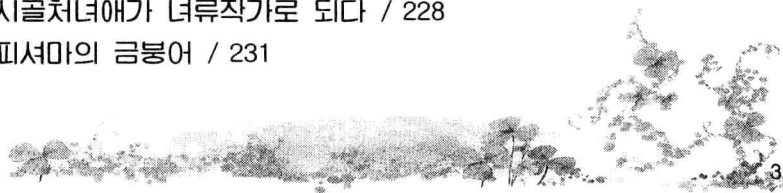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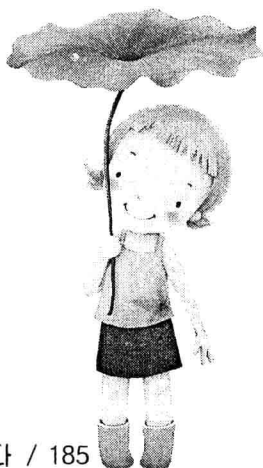




- 71 / 자물쇠공의 제자
- 74 / 첫번째 씨앗을 따라배워야 한다
- 77 / “금싸락”을 낚는 돼지
- 80 / 처녀의 지혜
- 83 / 거짓말받침대
- 86 / 독창적인 재치를 보이다
- 89 / 할머니의 묘한 수
- 92 / 쫓신을 거꾸로 신고 적군을 때버리다
- 95 / 힘을 비기는것은 지혜를 비기는것보다 못하다
- 98 / 기민한 재빛토끼
- 101 / 기발하게 생각한 꼬마부나비
- 103 / 묘한 수로 모자를 벗게 하다
- 106 / 진짜허수아비와 가짜허수아비
- 109 / 세가지 채
- 112 / 마른 우물속의 나귀
- 115 / 주인과 노복을 묘하게 바꾸다
- 118 / 밑바닥이 없는 나무통
- 121 / 묘책으로 품값을 받다
- 124 / 어떤 사람을 이곳으로 삼을것인가
- 127 / 문장부호로 왜놈들을 속여넘기다
- 130 / 부자와 무우
- 134 / 소이가 지략으로 X국왕을 이기다
- 137 / 개미가 복숭아를 옮기다
- 140 / 워싱턴이 말을 찾다
- 143 / 제일 좋은것과 제일 나쁜것
- 146 / 귀중한 우산
- 149 / 국왕이 지혜를 찾다



외국말을 활줄 아는 쥐 / 152	
두 아들의 운명 / 155	
낙시대와 고기 / 158	
달리기를 연습하는 꼬마사슴 / 161	
꼬마락타의 의문 / 164	
누구의 의술이 가장 고명한가 / 167	
학생들을 속인 교수 / 170	
말 잘 듣는 아이와 파괴군 / 173	
충명한 도적과 둔한 서생 / 176	
검술을 익히다 / 179	
난 어미닭이 될래요 / 182	
쇠마치로 닭알을 내리쳐도 부서지지 않는다 / 185	
레닌은 알지 못하면 묻는다 / 189	
왕악비의 독서시간표 / 192	
꼬마코끼리와 쇠사슬 / 195	
장대에서 선물을 얻다 / 198	
심산에서 호랑이를 그리다 / 201	
할아버지, 손자와 나귀 / 204	
숙련되면 요리가 생긴다 / 207	
매미가 날음을 배우다 / 210	
제일산 / 213	
주창이 개미를 치다 / 216	
파브르와 소똥구리 / 219	
세 건설로동자의 이야기 / 222	
신비로운 캥가루 / 225	
시골처녀애가 녀류작가로 되다 / 228	
피셔마의 금붕어 / 231	





- 234 / 날마다 한가지 일을 하다
 237 / 신기한 물동이
 240 / 이마의 후회약
 243 / 재간둥이처녀와 게으름뱅이처녀
 246 / 성냥파는 어린 남자애
 249 / 사랑으로 사랑을 바꾸다
 252 / 당굴사자
 256 / 외손벽도 소리를 낸다
 259 / 남을 느그롭게 대하는 주충
 262 / 간단한 유희
 265 / 괴상한 늑은이
 268 / 성실함이 더욱 중요하다
 271 / 미소의 힘
 274 / 누가 세대주로 될 것인가
 277 / 삼림의 1호법정
 280 / 일본간
 284 / 국왕의 집
 287 / 백번째 손님
 290 / 우랑종말
 293 / 고구마벽
 296 / 신을 신지 않는 아이
 299 / 나무는 누구를 위해 심는가
 302 / 꼬마돼지의 년하장
 305 / 바람소년의 이야기

신기한 샘물

멀고먼 옛날 어느 한 늙은 국왕이 중병에 걸렸다. 어느 날 한 의사가 아뢰었다.

“오직 신기한 샘물을 마셔야만이 국왕폐하의 병을 치료할수 있나이다.”

그래서 국왕은 세 아들중 그 신기한 샘물을 찾아온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하였다.

큰왕자가 준마를 타고 왕궁을 떠났다. 그는 가다가 도중에 한 난쟁이를 만났다.

“왕자님, 무슨 급한 일이 있사운데 이리도 서둘러 달려가시나이까? 도대체 가시는 곳이 어디시옵지요?”

큰왕자는 웬 난쟁이가 급한 길을 막는가싶어 심드렁해서 말했다.

“내 아무데로 가든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로다.”

결과 큰왕자는 산어구에 들어서자마자 길을 헛갈리고말았다. 그는 길북판에 섰채로 갈팡질팡하였다.

둘째왕자 역시 길을 떠나 얼마후에 그 난쟁이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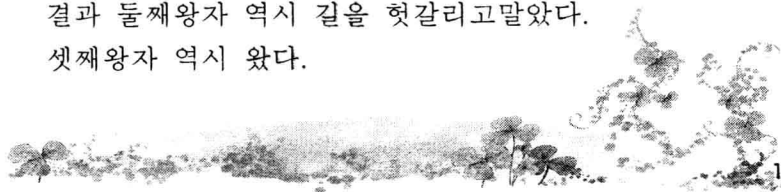
“둘째왕자님, 무슨 급한 일이 있사운데 이리도 서둘러 달려가시나이까? 도대체 가시는 곳이 어디시옵지요?”

둘째왕자는 하찮게 여기면서 말했다.

“난쟁이야, 이 왕자어른의 일에 내가 간참할게 뭐냐?”

결과 둘째왕자 역시 길을 헛갈리고말았다.

셋째왕자 역시 왔다.



난쟁이가 셋째왕자를 보자 아뢰었다.

“셋째왕자님, 무슨 급한 일이 있사운데 이리도 서둘러 달려가시나이까? 도대체 가시는 곳이 어디시온지요?”

그러자 셋째왕자가 이실직고하였다.

“부왕께서 중병에 걸렸느니라. 신기한 샘물을 찾아야만 병을 치료할수 있는데 네가 날 도와줄수 있겠느냐?”

이에 난쟁이가 여쭙었다.

“그 샘물은 성세안에 있사운데 대문가에 두 사자가 지키고있사옵니다. 왕자님이 이 빵 두개와 검을 지니고 가사이다. 꼭 쓸모가 있을거웨다.”

그리고나서 난쟁이는 셋째왕자한테 검과 빵의 사용방법을 알려주고는 마지막으로 신신당부까지 하였다.

“그 신기한 샘은 뒤뜰화원에 있사운데 왕자님은 한낮 12시전에 반드시 그곳을 떠나셔야 합니다. 지체하시다가 일단 성문이 닫겨진후에는 왕자님은 영원히 나오시지 못할줄 알아두시오이다.”

셋째왕자는 난쟁이한테 사의를 표한 다음 곧추 성새로 달려갔다.

난쟁이가 가르쳐준대로 검을 들어 세번 성문을 두드리자 과연 성문이 스르르 열렸다. 뒤이어 사자 두마리가 덮치는지라 빵 두개를 각각 사자들의 입에 밀어넣었더니 그 두마리 사자가 어느새 두마리 고양이로 변하는것이였다.

셋째왕자는 뒤뜰화원에 들어간후 바위속에서 흘러나오는 질푸른 샘물을 찾아내였다. 바로 신기한 그 샘물이였다.

셋째왕자는 샘물을 툇툴 넘치게 주전자에 받아들고는 쏜살같이 달렸다. 그가 금방 성문을 나서자 바람으로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셋째왕자가 돌아오는 길에 적들이 한창 그들의 나라를 들이치고있었다. 셋째왕자는 검을 휘둘러 적들을 모조리 내쫓고는 갖고 온 빵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제하였다. 늙은 국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셋째왕자한테 물려주었다.

이야기안내: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제아무리 강하더라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는것이다. 특히 “지구촌”이라고 하는 오늘에 와서 우리는 영국의 샤프를 입고 프랑스의 요리를 먹으며 미국의 프로롱구경기를 관람할수 있다. 바로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의 생활질이 나날이 제고될수 있으며 모든것이 더욱 아름답게 변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개인의 호의와 성실한 협력을 소중히 여겨야 할뿐만아니라 그에 따르는 보답이 있어야 한다. “자도 모자랄 때 있고 치도 넉넉할 때 있다.” 남한테는 늘 따라 배울 점이 있는것이다. 만약 자기 스스로 천하를 죄다 끌어안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큰왕자와 둘째왕자의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처지에 빠지고말것이다.



자라지 못하는 꼬마жат나무

바람아저씨가 나무숲으로 찾아오자 나무어머니들은 이제 곧 바람아저씨를 따라 먼곳에 가서 뿌리를 박고 성장해야 할 나무씨앗들에게 간곡히 당부하였다.

жат나무어머니는 응당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가를 씨앗들에게 일일이 당부하고나서 제일 어린 씨앗을 보자 어쩐지 결단을 내리지 못한채 주저하였다.

“애야, 넌 일단 어머니의 보살핌과 주변의 아저씨며 아지미들의 보호를 떠나서는 제대로 자랄수 없단다. 하니까 넌 떠나지 말고 어머니와 함께 있자꾸나.”

꼬마жат나무씨앗은 별수가 없는지라 어머니의 발밑에 있는 진흙속에 뿌리를 박고야말았다.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왔다. 꼬마жат나무씨앗은 진흙속을 뚫고 나왔다. 그는 고개를 들고 어머니의 크나큰 몸집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어머니곁을 떠나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이구나.)

어머니의 넓은 품을 바라보노라니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 어머니는 허리를 쪽 펴 우산처럼





비물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꼬마жат나무는 온실속에 있는것만 같았다. 이번에는 또 큰바람이 불었다. 그러자 아저씨와 아지미들이 꼬마жат나무를 감싸주었다. 그통에 큰바람은 살살 불어에는 산들바람과도 같았다.

그러나 꼬마жат나무가 자라려면 햇빛과 비와 이슬이 수요되었다. 하지만 그가 햇빛과 비, 이슬을 맞아들이려고 할 때 어머니의 덩치 큰 몸집이 어느새 그것들을 막아버렸다. 그리고 또 꼬마жат나무가 크자면 토양속의 양분이 수요되었다. 하지만 그가 막 받아들이려고 할 때 아저씨와 아지미들이 어느새 그 양분을 흡수해버렸다.

일년이 지나고 또 일년이 지났지만 꼬마жат나무는 아무리 해도 소소리높은 큰 잣나무로 자랄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바람아저씨가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꼬마жат나무가 큰소리로 불렀다.

“바람아저씨, 바람아저씨, 그간 안녕하세요?”

바람아저씨가 어정쩡해서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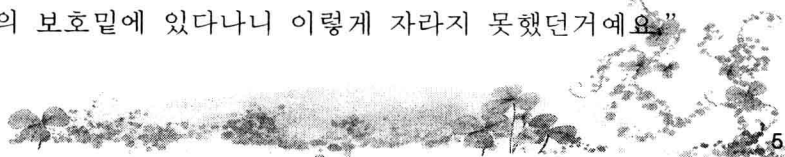
“넌 도대체 누구지?”

“전 꼬마жат나무예요. 이전에 아저씨가 저의 형님누나들을 데리고 갈 때 저만 어머니곁에 남았잖아요.”

“오, 이제 보니 정말 너로구나. 근데 넌 어찌하여 자라지 못했느냐? 너의 형님누나들은 모두 하늘높이 솟은 큰 나무로 되었단다.”

꼬마жат나무는 바람아저씨의 말씀을 듣고나서 못내 괴로와하였다.

“전적으로 제가 나약한탓이에요. 글썄 하루종일 어머니의 보호밑에 있다나니 이렇게 자라지 못했던거예요.”



이야기안내:

적잖은 어머니들은 정말 자기 아이를 애지중지한다. 그녀들은 잣나무어머니처럼 자기 아이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을가봐 두려워한다. 잣나무어머니의 지나친 사랑으로 꼬마잣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영원히 한그루의 애 어린 잣나무로 되었다.

혹여 친구는 꼬마잣나무가 너무나도 가련하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친구는 주위의 꼬마친구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는것을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어느날 큰 눈이 내린데다가 날씨가 몹시 춥고 땅도 매우 미끌어 친구는 따뜻한 이불속에 파묻힌채 일어나기 싫을수도 있다. 어머니도 창밖을 내다보고나서 이처럼 추운 날씨에 차마 친구를 행길에 내놓을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할수도 있다. “애야, 날씨가 매우 추운데 오늘날은 학교에 가지 말아라. 어머니가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네가 된감기로 몹시 앓고있다고 여쭙마.”

친구는 못내 기뻐하면서 아예 학교로 가지 않을수도 있었을것이고 평시와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학교로 갈수도 있었을것이다.

우리는 친구가 꼬마잣나무처럼 자라지 않을것이며 용감히 비바람을 직시할것이라고 믿어마지않는다!



포마도서관리원

수십년전의 어느날 한 열한살난 어린 남자애가 일손을 도우려고 미국의 어느 한 도서관을 찾아갔다. 남자애는 몹시 여위었는데 두눈을 무시로 깜박이었다.

관리원녀사는 우선 남자애한테 도서분류를 가르쳐주고 나서 그더러 되돌려온 도서들을 정리하는 한편 잘못 꽂은 도서들을 원래자리에 다시 꽂게끔 하였다.

이때 어린 남자애가 장난으로 한마디 물어왔다.

“그럼 도서와 숨박꼭질을 하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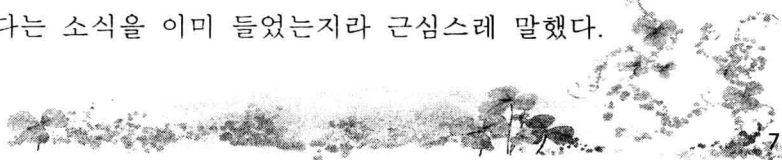
녀사는 어린 남자애가 비록 애티를 벗지 못했지만 제법 엉뚱한 생각을 굴리는지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호호호, 정말 비슷한 말을 했구나!”

남자애는 책꽂이의 미궁속에서 오락가락하며 잠간새에 잘못 꽂은 도서들을 여러권이나 찾아냈다.

이튿날 이른아침이었다. 일찌감치 출근한 남자애는 매우 참답게 책꽂이의 구석구석을 살살이 훑어나갔다. 남자애는 하루일을 끝낸 다음 자기가 도서관리원직무를 맡겠노라고 정식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업을 꼭 잘해낼 자신이 있노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반년이 되지 않아 남자애는 관리원녀사를 자기 집에 손님으로 청하였다. 식사를 할 때 남자애의 어머니가 그들이 이사를 한다고 관리원에게 이실직고하였다. 남자애는 전학한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는지라 근심스레 말했다.





“제가 가고나면 누가 와서 그 잘못 쏜 책은 정리하겠나요?”

후날 이 어린 남자애가 느닷없이 도서관문가에 나타나더니 기쁨에 겨워 관리원에게 여쭙었다.

“전 어머니더러 제가 이곳에 전학하여 공부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등교할 때나 방과후면 아버지가 자동차로 절 마중하고 보내주기로 했답니다.” 그는 또 뺨고꿨듯이 말했다. “만약 아버지가 절 관할하지 않는다면 전 스스로 걸어서 다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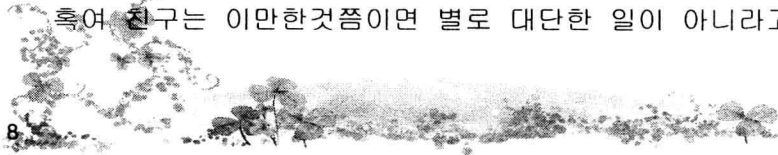
관리원녀사는 이 꼬맹이가 이처럼 일처리가 주도면밀한 데다 결심 또한 이처럼 확고부동한것을 보면서 필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간에 꼭 성공하리라는 굳은 믿음으로 한가슴이 그들먹하였다.

그후 과연 관리원녀사가 예측한바대로 이 남자애는 정보시대의 천재로 되었는데 그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웨어회사의 총재인 빌 게이츠였다.

이야기안내:

세계적으로 일인자의 부호로 된 빌 게이츠는 과연 선천적으로 돈벌이능수로 될 재질을 갖추었던가?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알수 있는바 그는 단지 일반적인 어린이로서 자기에 대한 요구가 좀더 엄격했을 따름이고 품을 들인것이 좀더 많았을 따름이며 내린 결심이 좀더 컸을 따름이란 그 약간한 더 많음으로 하여 남달리 뛰어나게 되었던것이다.

혹여 친구는 이만한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할것이며 평소에 컴퓨터를 좀 적게 다루고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좀 적게 팔고 텔레비를 좀 적게 본다면 나 역시 훌륭히 해낼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긴 그렇다. 관건은 바로 이 보잘것없는 약간한것이다. 기실 우리 매개인을 놓고 말할 때 너나없이 남보다 약간한 재간이 좀더 있거나 혹은 남보다 좀더 착할수 있고 혹은 남보다 좀더 세심할수 있고 혹은 달리기에서 남보다 좀더 빠를수 있고 혹은 글재간이 남보다 좀더 나올수 있는바 다만 평소에 우리가 이 약간한것을 념두에 두지 않았을따름이다.

만약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의 우점은 말살될수가 있으며 우리의 재간은 매장될수가 있다. 기실 오직 친구가 좀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자기의 강직함을 찾아낼수 있을것이고 그 어느 방면에서든지 더욱 우수할수 있을것이다.



어린 처녀애와 천당새

1858년, 스웨리예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딸애가 태어났다. 이 녀자애가 출생하자 그녀를 기다리는것은 바로 호의호식하는 아름다운 생활이었다. 하기에 그녀는 동화속의 나얼린 공주마냥 만자천홍이 무르녹는 꽃밭속에서와 사람들의 찬미속에서 행복하게 자랄수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한것은 얼마후 이 나얼린 녀자애가 의학적으로도 해석할수 없는 마비증에 걸렸던것이다. 의사들의 여러 방면으로 되는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효험을 보지 못한 딸애때문에 부모들은 거의 희망을 상실할 정도로 안절부절을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어린 처녀애와 집식구들이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처녀애는 보모와 단둘이 갑판우에서 바다 풍경을 구경하였다. 정열적이고 동정심이 많은 선장의 마님이 이 외롭고 쓸쓸해보이는 처녀애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녀한테 선장의 귀염둥이인 천당새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님의 말에 따르면 이 천당새는 이름이 못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할뿐만아니라 모양새도 매우 아름다왔다.

처녀애는 선장 마님의 아주 실감있고 생동한 서술에 깊이 흡인된 나머지 차츰 생기가 돌았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감탄을 내뿜었다.

“히야! 정말 매력적이군요! 마님, 제가 그 새를 볼수 있게끔 해주실래요?”

“그래, 그래.” 선장 마님이 흔쾌히 승낙하였다. “근데 그